



최근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혁은 불신공조를 해소하고 국민단합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여망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의식 개혁이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공직사회의 부패 근절을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것은 공직자 개혁을 필두로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동안 개혁을 부르짖어왔음에도 성과가 없었던 것은 정적 개혁을 외쳐왔던 주체들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은 곧 '정도(正道)'를 찾는 일이다. 따라서 부처님 사상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가정폭력 범진다”...가족 아너도 신고가능

## “인권존중 가족부터”

부부폭력 발생률 31.4%...매맞는 아이 10명중 7~8명

이제 가정에서의 폭력은 '집안 일'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서 처벌 받게 된다.

7월1일부터는 가장이 아내나 자녀를 때리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정폭력이 있을 때 112 전화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반드시 출동해 제재하고 사안에 따라 처벌도 하게 된다. 처벌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은 남편과 부모의 폭행뿐 아니라 노인에게 대한 폭행의 폭력,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학대, 명예훼손, 모욕 등 광범위하다.

여전과는 달리 당사자는 물론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이나 노인을 보호·육성하거나 치료하는 기관의 종사자나 기관의 대표의 범

죄를 안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가정폭력이 적발되면 범인은 때린 사람을 가족과 격리해 퇴거시키거나 100m이내에 접근을 금지시킨다. 폭력 정도가 심하면 일정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고 부모로서의 친권도 박탈하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 부인을 때린 남편, 이들을 거들면서 며느리를 폭행한 시부모와 이에 대항해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 등 가족 4명이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처음으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은 이 법률의 시행 필요성을 짐작케 한다.

최근의 통계는 가정폭력의 정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31.4%. 부부 10쌍중 3쌍이 부부폭력을 겪고 있으며 남편 3명중 1명이

한 해에 1회 이상 아내를 구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부부폭력률 16.1%보다 2배이상, 홍콩의 14.1%보다 3배나 높은 수치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한 아동학대 조사에 따르면 72%의 어머니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체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28%, 프랑스 30%, 태국 23% 보다 2배이상 높다.

여성계는 "경제위기로 인한 화풀이성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이 실질적인 가정폭력 방지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그에 맞춘 교육에 길들여진 사고방식을 바꾸어 가정내 인권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7월1일 평화 가정을 위한 가...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7월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 거리 홍보에 나섰다.

### 불교의 눈

### “폭력은 가정행복의 독”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형제 부부 가족 안락의 천축 사이에 서로 경계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 통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무량수경) 아무런 방어력을 가지지 못한 약자인 아내와 자식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은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회악이다. 어떠한 미물에 대해서도 폭력을 반대하는 불교의 평화사상은 그래서 가정폭력을 치유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폭

력을 두려워 하고 죽음을 두려워 한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폭력이 만유에 있는 불성을 파괴하는 죄악 통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무량수경) 아무런 방어력을 가지지 못한 약자인 아내와 자식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은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회악이다. 어떠한 미물에 대해서도 폭력을 반대하는 불교의 평화사상은 그래서 가정폭력을 치유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폭

### 개혁

### “과실 고쳐 선을 행한다면...”

“공고 바른 것을 길(道)이라 하고 두려움 없는 곳을 목적지라 한다. 고요하고 한가한 수레를 타고 진실의 가르침을 덮개로 삼고 부끄러움을 고배로 삼으며 바른 생각을 재갈로 하여 지혜를 훌륭한 말뚝이 삼고 바른 소견을 안 내자로 삼는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라도 이것을 타면 생사의 험한 숲속을 지나 편안하고 즐거운 열반에 도달하리라. (잡아함경) 만약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서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절로 스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십이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여주었다. “무엇이 세상을 유지하고 무엇이 세상을 이끄는 것이며 어떤 법이 있어 이 세상을 제어합니까?” 부처님께서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이 세상을 유지해 가고 마음이 세상을 이끄는 법이 되어 세상을 능히 제어하느니라.” (법역잡아함경)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하여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으로써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소행자 등을 보호하고 보살피라. (중아함경)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재제가 없으면 국력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충직한 중신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고, 현명한 사람들은 분규에 달려들지 않으려고 침묵을 지키고, 오직 아첨꾼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직권을 남용해 부정한 수단으로 축재에 몰두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부는 통치력을 잃고, 정당한 정책은 폐허 속에 묻혀 버린다. (대살채니건사소설경) 공물을 단속하여 진실을 쫓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법구경)

## 동네가게 불량식품 퇴출 시민단체 팔 걸었다

“춘다! 이 남은 스키라 맛다바는 구멍이를 파 그곳에 모두 물러라. 춘다! 이 세상에 이것을 먹더라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아.”(열반경)

부처님께서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한 상한 음식을 드시고 병이 든 후 춘다에게 한 말이다.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동네 슈퍼와 구멍가게의 저질·불량식품 물아내기에 시민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내 12개 시민단체 소속 명예식품 감시원 1백20명은 영업면적 90평 이하의 소규모 동네 슈퍼마켓과 구멍가게 등 1만6백여곳에 대해 7월1일부터 대대적인 감시를 벌이고 있다.

단체당 10~15명씩 선발된 명예식품감시원들은 오는 10월까지 2인1조 60개반으로 편성돼 위생공무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식품위생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들의 주업무는 무허가·제조업체 등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 판매기준을 위반한 업소와 유통기한을 어긴 식품을 진열·판매한 업소 등 저질·불량식품을 파는 업소에 대한 계몽·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나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제품을 구입, 증거를 확보해 고발하면 시가 이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스승은 다섯가지 일로 제자를 축은 히 여기며 가르쳐야 한다. 다섯가지란 학문을 배우게 하며, 지극한 기예(技藝)를 가르치며, 배움에 민첩케 하며, 선도(善道)로 인도하며, 현명한 친구를 따르게 함이다.”(선생자경)

입장객수가 1백30만명을 돌파한 인기영화 ‘여고괴담’이 과연 스승의 명예를 추락시켰을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김민하)가 교원단체 우러를 들어 남양양동 ‘여고괴담’의 상영금지 가져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이를 둘러

## 영화 ‘여고괴담’ 교사명예 훼손 논란

싼 논쟁이 한창이다. 교총은 “영화내용 가운데 남양교사를 ‘미친 개’로 표현한 부분과, 실제로 다 과장되게 그려진 교사폭력 등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 교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영화상영 저지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픽션인 영화의 내용을 들어 문제삼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교육현장에 대한 비판과 그 해결책을 학창시절에 들었을 법한 ‘귀신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낸 이 영화는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을 우정과 용서와 이해를 통해서 풀어야 함을 강조하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시각이다.

오랜만에 나온 불만 청소년영화를 교총이 ‘교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관공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김재경 기자

### 원진레이온 50억 장학재단

경기도 남양주시는 7월1일 장학금 50억원 규모의 남양주 장학재단(이사장 김영희남양주 시장)을 설립했다. 장학재단은 원진레이온 청산법인이 남양주시 원진레이온 부지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기탁한 것. 연간 이자 약 6억원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벌이기로 한 재단은 8월까지 제1기 지급대상자를 접수, 심사한 뒤 9월초 첫 장학금을 지급한다. (0346)590-2754.

### 행상으로 번 1억 모교 기탁

위암 말기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행상으로 모은 1억원을 모교에 장

학금으로 기탁했다. 강릉시 동인병원에 입원, 6개월째 투병중인 박갑진(88) 할머니는 전재산 1억원을 지난 6월27일 서울 동덕여고 박상건교장에게 전달했다.

### 노인영정 찍어주는 파출소장

일선 파출소장이 불우노인 3백여명의 영정사진을 무료로 찍어줘 화제. 김봉열(47) 고양경찰서 신도파출소장은 지난 91년 성사파출소장 때부터 관내 노인정 등을 찾아 혼자 사는 노인 등의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 노숙자 위한 무료목욕탕

“좋은세상만들기 위한 작은 모임”은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목욕탕 행사를 매달 첫째주 화요일 중

구 등자동 청운탕에서 첫 정기행사를 연다. 무료 목욕탕 행사에는 찻술·면도기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청운탕은 한번에 5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 (02)543-7959

### 월급깎인 고교교사 강도짓

경기 고양경찰서는 길을 가던 20대 여자 회사원의 목을 조른 뒤 현금 12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서울 K고교 교사 홍상규(40)씨의 구속영장을 6월30일 신청했다. 경찰은 초등학생 등 자녀가 2명인 홍씨가 빚을 3천만원 진데다, 2분기 교직수당이 40% 깎이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생활고 때문에 강도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상품

### “젖은 우산 포장기”



비오는 날 방문객들의 젖은 우산 때문에 실내가 뿔뿔자극으로 더럽혀지는 고민을 해소해 주는 ‘젖은 우산 포장기’가 시판됐다. 우산을 포장기 위쪽 삼입구에 밀어넣고 옆으로 우산을 빼면 자동으로 포장해 주는 이 제품은 조작이 간편하고 스펀제로 만들어져 녹이 슬 염려가 없어 반영구적이다. 백화점, 병원, 법당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주)용우정밀. 가격은 68만원. (02)543-8434

**관음출판사**

▲ 화제의 신간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딱하면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는 성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知如己는 百戰百勝,이란 말도 相術을 알아야만 통찰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相術이란分野가 우리 생활과 얼마나 그 比重이 무거운지 하는 것은 再論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家庭에서는 寶藏으로 職場에서는 處境指針으로 濟은이 되어주는 社會生活의 必順 參考書로 銘記를 善用하여 探深究微한 教養 書로 一讀을 勸하는 바입니다. - 周易通信大院長 梁哲庵

哲學博士 曹 誠佑 지음 / 값 15,000원

승월스님 풀 김백만 편지 申 坪 지음

**사주학 핵심비결** 지금 이때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이책을 펼쳐 보십시오. 당신의 미래의 운명이 바뀔니다.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명작. 신국판/값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해 당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먹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들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 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A5신/양장본/35,000원

**古典 풍수학 설상부**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이 가진다. 산천은 풍(風)과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氣)를 형성한다. 사림도 여기에 걸려지는 것이니 인걸(人體)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값18,000원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歷史는 바뀔 수 있어도 佛敎傳統儀式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전통 葷 및 불자 탐승용 2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과학적인 설계

“사찰에 禱[원]은 필수품입니다.”

※ 5 단 분해 조립형의 편리한 설계 ※  
※ 조립형이라 법당에 장엄용으로 보관이 용이함 ※  
※ 원목을 사용 전통에 입각하여 제작한 예술적 작품 ※

생전 예수제의 해에 불자들이 가마에 타고 도량을 돌며 소원성취를 빌고 극락왕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설계

종림불사조성회사 **藝暉佛美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文培洞 17-1 신화빌딩 3층 TEL:(02)704-5070(代)

부처님과 맺은 인연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영업품목: 고건축·대불·목불·동불·특수불·석불·명화·개공·단청·법당내부·사찰 홍보기획 및 출판대행

**2천만의 깨달음을**

참고 명으로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